

귀어 1년만에 1인 3역...하루하루가 보람차요

전남도 우수 귀어인 선정된 영광 구수·대신마을 어촌계 장문석 사무장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체험프로그램 참여 후 귀어 결심
어촌계 사무장·상담사·문화관광해설사로 바쁜 나날 보내
어촌 뉴딜300 선정...체험·휴양마을 조성 등 노력 할 것

“마을 앞 바다에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떠오를 내일의 해를 생각합니다. 어촌에서 펼쳐지는 제 인생 2막이 기대됩니다.”

2020년도 전남도 우수 귀어인으로 선정된 영광 백수읍 구수·대신마을 어촌계 장문석(45)사무장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ACC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장 사무장은 2019년 마을에 정착한 ‘초보 귀어인’이다. 지난 해 체험을 위해 찾았던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구수·대신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다.

1997년 소위로 임관해 중령까지 대한민국 군인으로 최선을 다해온 장 사무장의 귀어 결심은 이미 5년 전부터 계획됐었다.

장 사무장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부심도 느꼈지만 자유롭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결심했다”며 전역의 이유를 밝혔다.

장 사무장은 전역을 약 10개월 남겨둔 2019년 5월부터 장기 복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직교육도 귀농·귀어 부문 위주로 받았다.

특히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3박 4일간의 어촌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상지인 구수·대신마을 주민들의 후덕한 인심과 끈끈한 정에 매료된 장 사무장은 이후 진행된 ‘어촌 한달살이 체험’에 들어 마을을 택하며 최종 귀어지로 낙점했다.

장 사무장은 지난 해 12월 마을 이장과 어촌계원들의 도움으로 마을의 빈집을 임대받아 생활하며 마을에 적응해 나갔다.

이후 장 사무장은 마을 주민들의 지지로 어촌계원이 됐고, 어촌계 사무장으로도 발탁되어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정부에서 귀어귀촌 창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받았던 집을 구매해 수리를 하고 있고, 배를 구입해 뱃머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문석호’ 건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또, 귀어·귀촌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영광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도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 사무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 해야 할일이 산더미다.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마을 발전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을이 어촌 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을 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조성하고 싶다. 또 마을 어르신들의 시니어 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마을 기업을 만들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 전남도 우수귀어인으로 선정된 영광 구수·대신 마을의 장문석(45·오른쪽에서 두번째)씨. 지난 18일 광주 동구 ACC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가족과 함께 수상을 기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 이름을 새긴 ‘문석호’ 건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또, 귀어·귀촌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영광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도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 사무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 해야 할일이 산더미다.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마을 발전을

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을이 어촌 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을 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조성하고 싶다. 또 마을 어르신들의 시니어 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마을 기업을 만들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착용 생활화” 법사랑위원 담양지구협 홍보 활동



법무부 법사랑위원 담양지구협의회(회장 서생현)는 지난 21일 담양읍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마스크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홍보 계도활동을 펼쳤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담양지구협의회 제공>

5·18유족회, 소화자매원·취약계층에 쌀 전달



5·18유족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뜻을 담아 (사)소화자매원을 비롯한 취약계층 250여명에 각각 쌀10kg을 전달했다. 기부물품은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되며 배송이 힘든 취약계층에게는 5·18유족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5·18유족회 제공>

김명진 전 행정관, 호남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임용

김명진(57)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활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호남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다양한 국경을 경험한 국정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김 전 행정관은 2학기부터 학부생을 상대로 ‘현대정치 이해’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국정의 최고 컨트론타워인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국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직간접 경험하면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함께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 교과서 밖 중앙정부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사업은 국가기관,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인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재직 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채희종 기자 chae@

봉준호·정은경, 美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됐다.

봉 감독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봉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올해 초 아카데미 시상식을 석권하며 한국과 세계 영화

화사를 다시 썼다.

배우 틸다 스윈튼은 추천사에서 “그는 매우 똑똑하고 전문적이며 영화를 잘 알고, 활기가 넘치고 불경하다. 결단력 있고 로맨틱하며 정말하게 조율하고 끝까지 연민을 잃지 않는다. 그의 영화에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속물근성이나 냉소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공격적으로 세련된 영화 팬”이라며 “다정하고 의리 있으며 사람을 즐겁게 하

고, 편안하고 장난기 많고 진실하며 특히 술에 취했을 때 정말 재미있고, 가족적이며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평도 덧붙였다.

스윈튼은 봉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2013)와 ‘옥자’(2017)에 출연한 바 있다.

스윈튼은 ‘설국열차’ 개봉 당시 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봉 감독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게 뭘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늘 계획을 미리 철저하게 짜지만,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완전한 자유를 줬다”



봉준호 감독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며 “그 안에서 나는 인간적인 불꽃을 느꼈다. 그가 진정한 장인이란 뜻이다”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연철뉴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백파대 요린이 레시피 55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김중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고향이 보인다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국민의힘 김중진	00 인간극장 스페셜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김중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15 생방송 연극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TV쇼 진품명품(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뿌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6		00 뉴스브리핑
00 마법소년 디디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다큐플러스 스페셜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30 기막힌 유산	30 영화가 좋다	30 KBC 8 뉴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특선다큐 지구의 지배자, 영장류	2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00 다큐 인사이드 50 더 라이브	35 투페이스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돈벌래 스페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5 통합뉴스룸 ET(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더 라이브(재)	20 나가 가장 예뻐할 때
		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 하니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로보카 폴리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45 다큐 잇
07:45 최고! 호기심딱지	13:00 명의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아시아 핫 플레이스 -천 가지 매력, 홍콩>
08:30 미니특강다 슈퍼공룡파워2	14:45 세미와 매직큐브	21:30 한국기행 <동쪽으로 튀어 4부 마음속 심표를 찾아>
08:45 워든지 유적박스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50 파란만장
09:00 레인보우 루비	16:00 방구대장 뽀뽀이(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15 로보카폴리 송송뮤지엄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09:30 몰랑	16:30 당동당 유치원(재)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도전! 나도 과학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4일(음 8월 8일 庚午)

36년생 폭넓은 시야라야 참신함을 도모할 수 있다. 48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리라. 60년생 패치는 것보다는 덮어 두는 것이 옳다. 72년생 가장 왕성한 불길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8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96년생 상황이 바뀌면서 대세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4, 84	42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황색과 시킬 수 있게 된다. 54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 될 것이다. 66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 될 것이다. 78년생 눈 거북이가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90년생 과감하게 시도 해라. 02년생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지 말고 고집있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행운의 숫자 : 37, 64
37년생 파급 효과까지 예상하고 판단해야겠다. 49년생 함심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니 버리는 것이 좋다. 73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85년생 일부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97년생 천신만고 끝에 난공불락에 점령하는 이치다. 행운의 숫자 : 15, 80	31년생 도움을 주는 이가 있다. 43년생 취득하느니 상실하고 마느니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55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67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79년생 쾌도난마 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91년생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돌출하는 성향이 주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7, 78
38년생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50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응통을 부리는 것이 맞다. 62년생 대동소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74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86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98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에까지 수월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73	32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을 볼 필요가 있다. 44년생 바로 지금이다. 56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68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80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잡는 기쁨이 있다. 92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13, 57
39년생 점점 복잡단단해져 접어든다. 51년생 앞서서 격정해 봤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년생 길조가 넓은 국면으로 확대 되어가는 형상이다. 75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 않게 진중한 실행이 계속 되어야 한다. 87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99년생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38, 87	33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5년생 형세 세분화 되면서 훨씬 복잡해진다. 57년생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무리가 없다. 69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되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81년생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93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6, 61
40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52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4년생 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라. 76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88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00년생 차질이 빚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43, 93	34년생 해복은 일이 가닥이 잡힌다. 46년생 산 넘어 산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58년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70년생 아쉬움이 강하게 남겠지만 빨리 잊는 것이 옳다. 82년생 순간의 방식은 커다란 손해를 부른다. 94년생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빈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5, 66
41년생 안배와 활용을 잘 해야 하겠다. 53년생 자칫 잘못다가는 실기하게 된다. 65년생 기다려라. 77년생 설계에 빈틈이 없어야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89년생 허상일 뿐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다. 01년생 경험을 통한 해득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 행운의 숫자 : 05, 86	35년생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47년생 시련은 알찬 결실을 가져다주는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59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명심하라. 71년생 사려 깊은 성찰 속에 혜안이 열리게 될 것이다. 83년생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95년생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48, 70